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高齡化 社會에 있어서 老人의 性生活 實態
및 삶의 滿足度에 關한 研究

2011年

The logo of Hansung University is a large, stylized blue 'H' shape. To its right, the words 'HANSUNG UNIVERSITY' are written in a light gray, sans-serif font, with 'HANSUNG' on the top line and 'UNIVERSITY' on the bottom line.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社會福祉學科

社會福祉專攻

申 容 善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權海秀

高齡化 社會에 있어서 老人의 性生活 實態
및 삶의 滿足度에 關한 研究

A Study on Elderly People's Sex Life and Their
Satisfaction with Life

2010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社會福祉學科

社會福祉專攻

申 容 善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權海秀

高齡化 社會에 있어서 老人의 性生活 實態
및 삶의 滿足度에 關한 研究

A Study on Elderly People's Sex Life and Their
Satisfaction with Life

위 論文을 社會福祉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社會福祉學科

社會福祉專攻

申 容 善

申容善의 社會福祉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10年 12 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
1. 연구 범위	3
2. 연구방법	3
제2장 노인과 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4
제1절 노인의 개념 및 노인문제	4
1. 노인의 개념	4
2. 노인인구 증가와 노령화 영향	5
3. 노인의 일반적 특성	9
제2절 노인의 성적(性的)특성	11
1. 노화에 따른 신체적 성(性)특성	11
2. 노인의 성에 대한 인식	12
3. 노인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3
4. 노인의 성생활의 중요성	15
제3절 노인의 성생활과 삶의 만족도	19
1. 노인의 성생활	19
2. 노인 삶의 만족도	20
3. 노인의 성생활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	22
제3장 노인의 성생활과 삶의 만족도 조사	24
제1절 연구문제	25
제2절 조사도구	26

1. 노인의 특성변수	26
2. 성인식	26
3. 성생활 실태	26
4. 성생활 만족도	27
5. 삶의 만족도와 측정변수	27
제3절 자료 수집 방법	28
제4절 자료 분석 및 처리	29
 제4장 분석결과 및 논의	30
제1절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성생활 실태	30
1. 인구통계학적 특성	30
2. 성 생활 실태	32
제2절 성생활 인식	36
1. 성생활 인식 수준	36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성생활 인식 차이	37
제3절 성생활 만족도	39
1. 성생활 만족도 수준	39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성생활 만족도 차이	40
제4절 삶의 만족도	42
1. 삶의 만족도 수준	42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43
제5절 성생활 인식과 성생활 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46
1. 성생활 인식과 성생활 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46
2. 성생활 인식이 성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46
3. 성생활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47

제5장 결 론	49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49
제2절 제언	54
제3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연구과제	56
참고문헌	58
설문지	61



표 목 차

<표 2-1> 노인 인구 및 비율	6
<표 2-2> 인구 구성비	6
<표 2-3>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7
<표 2-4> 주요국가 고령화 속도	8
<표 3-1> 설문지 구성	28
<표 4-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1	31
<표 4-2>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2	32
<표 4-3> 성생활 실태1	34
<표 4-4> 성생활 실태2	35
<표 4-5> 성생활 인식 수준	36
<표 4-6>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성생활 인식 차이	37
<표 4-7>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성생활 인식 차이	38
<표 4-8> 성생활 만족도 수준	39
<표 4-9>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성생활 만족도 차이	41
<표 4-10>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성생활 만족도 차이	42
<표 4-11> 삶의 만족도 수준	43
<표 4-1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44
<표 4-1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45
<표 4-14> 성생활 인식과 성생활 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와의 상관관계	46
<표 4-15> 성생활 인식이 성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47
<표 4-16> 성생활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48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고령화 사회는 노인 성생활의 변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특히 노인의 이성교제나 성관계의 변화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비고령화 사회에서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로 노인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가족공동체나 사회공동체의 구축, 노인과 성 개념의 변화, 노인 성생활의 일상화 등은 노인의 성생활을 건설적이며 현실적으로 재정비하려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술의 발달은 이제 ‘80세 인생’을 넘어 ‘90세 인생’에 대비해 노후를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 정년 연령이 50~60세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60세를 기준으로 보면 ‘은퇴 후 30년’은 이제 선택 아닌 필수다. 인생에서 은퇴 후 60세 이후의 노년 생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관련하여 노인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그 수준도 매우 높아질 것이며 지금까지의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에서 보다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노인들의 성에 대한우리 사회의 반응은 아직 냉담한 실정이다. 인간의 기본 욕구인 성행위에도 연령에 따른 차별이 있다. 사랑에 국경이 없다면 성에도 나이가 없어야 한다.¹⁾ 성문화가 과거보다 훨씬 개방되었다고 해도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아직도 노인들의 성에 대해서는 터부시하는 경우가 많다. 노인이 되면 성 능력이 상실되고 관심이 줄어들어 성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성적(無性的)인 존재로 간주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배적 풍조이다.

여전히 사랑과 성은 젊은이들만의 전유물로 인식되고 젊은 사람과 비교해 표현의 방법만 다를 뿐인데 노인들의 성은 편견이라는 끈으로 묶어놓고 있는 셈이다. 특히 홀로된 여성노인은 혼자 사는 것을 미덕으로 당연시

1) 유성호,강지현,홍미령(2003), 『노년의 사랑과 성』, 서울: 미래를 위하여, pp. 16-17.

하고 ‘성노인(聖老人)’으로 존재하도록 문화적 압력을 가하여 노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무지와 소외는 노인의 행복추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²⁾

성욕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중의 하나로 노년기가 되어도 소실되지 않으며, 건전한 성생활은 기분 좋은 노년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생명수의 원천이 된다. 노인의 성적 욕구는 단순히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그것이 비뚤어져 범죄로 이어졌을 때 사회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노인들의 성적 욕구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성 인격체로 인정해 주는 문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노인들도 우리 사회를 이루는 성원이라는 사실에 의의가 없다면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그들의 사랑과 성을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국에는 전통적으로 노인의 성문화를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 노인의 이성 관계나 성교제의 변화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이 낙후되어 있을 뿐 아니라 노인의 성생활에 대한 실태 연구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그 동안 간과되었던 노인의 성실태가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노인의 성생활이 새로운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성생활 실태를 고찰해서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나이를 먹고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 따라서 노인의 성에 대해서 경직된 사고와 노인을 탈성적 존재로 만드는 부정적인 시각에 좀 더 열린 마음을 갖고 이를 사회가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노인에게 성(性)이 없다는 사회적인 편견과는 다르게, 노인에게도 성욕과 성적 능력이 있으며, 또한 실제로 성 생활을 하고 있다. 덧붙여 노인의 성 생활은 노인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확인하는 실존증명(實存證明)일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성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들은 성에 대해 어떠

2) 성경원(2004), 「노인의 성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

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또한 인구사회적 • 경제적 특성에 따른 성생활 실태와 성인식이 성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성생활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노인의 성에 대한 이해와 부정확, 편견, 고정관념을 감소시킴으로써 관대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며, 또한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행복한 노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 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총 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더불어 연구목적을 밝힌 후 연구범위와 방법을 밝혔다. 제2장은 노인과 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로서 노인의 개념과 성의 개념 및 노인의 성적 특성 및 성 기능 그리고 노인의 성 생활의 중요성과 성 생활 영향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노인의 성생활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검토하였으며,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노인의 성 생활의 실태 및 인식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 분석을 한다. 제4장에서는 분석결과 및 논의를 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 연구의 요약 및 제언을 하였다.

2. 연구방법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고찰과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먼저 문헌고찰로는 국내외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논문 등으로 이론적 고찰을 하였으며, 각종 통계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정부기록물 자료,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서 노인 성 생활의 실태 등을 파악하였다. 실증연구로는 서울시 S구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작성하여 조사해 분석하였다.

제 2장 노인과 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절 노인의 개념 및 노인문제

1. 노인의 개념

노인을 인간의 노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육체적, 심리적, 정서적, 환경적으로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 생리적 및 생물학적인 면에서 쇠퇴기에 있는 사람,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여, 노인의 개념에 생리적,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노화의 개념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혜원(2004)은 “인생의 마지막에서 노화와 더불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이 점차 쇠퇴하여 생활기능 수행상의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³⁾ 또한 뉴가튼(Neugarten, 1974)은 노인을 연령별로 연소노인, 중, 고령인, 고령노인 등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연소노인(young-old)은 55~65세 로서 아직 사회적으로 일을 하고 능력도 절정에 달한 사람들이고, 중, 고령노인(middle-old)은 66~75세로 퇴직자들이 대부분이며, 고령노인(old-old)은 일을 하기 어려운 75세 이상 노인으로 신체적으로 노쇠하고 질병에 걸린 경우가 많아 경제적으로 곤란하고 가정적,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⁴⁾

윤진은 노령선을 절대연령 또는 역연령(chronological age)으로 신체적 성숙이나 건강수준에 따른 생물학적 연령(biological age), 심리적성숙과 적응에 따른 심리적 연령(psychological age), 사회규범에 따른 사회적 연령(social age)과 자신이 스스로 느끼는 지각적 연령(selfawaring age)으로 분류하고 있다.⁵⁾

3) 이혜원(2004), 『노인복지론 : 이론과 실제』, 유봉출판사, p. 34.

4) 권육상(2002), 『노인복지론』, 유봉출판사, p. 28.

5) 이혜원, 전제서, p. 14.

그밖에 노인에 대한 개념은 학자 또는 국가나 사회의 문화, 경제적배경과 관습, 시대적사고 등에 따라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노화는 실제로 개인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개인 내에 있어서도 각각의 측면에 있어서 다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노령선(노인이 되는 시기)은 개인 간 및 개인 내 각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한 개인을 노인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만 60세를 '회갑년(回甲年)'으로 하는 전통이 전해져 오고 있으며, 생활보호법(1991)에서는 65세 이상을 생활보호 노인으로, 또한 고용촉진법시행령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 50~54세를 준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1981)에서도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교실운영지침(1990)에서는 노인교실의 이용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한노인회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 또한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생산활동 인구를 15세 이상~6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급증하는 노인인구 수, 연장되는 평균수명, 앞으로 확충될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한 소득보장제도, 그리고 정년 연장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이를 종합하여, 「노인은 인간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퇴화기에 있는 사람으로, 자기 유지기능과 사회생활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라 정의하고, 연구의 편의상 노인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적, 행정적 개념의 역연령인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규정하여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노인인구 증가와 노령화 영향

2006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인구의 9.5%로 2018년에는 고령인구가 14.3% 이상인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6년에는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의 고령인구 편입으로 인해 초 고령사회(20.8%)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삼성경제연구소, 2008). 더욱이 2050년에는 한국의 고령인구의 비중이 38.2%에 달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표 2-1> 노인 인구 및 비율 (단위: 만 명, %)

구 분	2000년	2006년	2010년	2018년	2026년
총 인 구	4,701	4,830	4,887	4,934	4,904
노인인구	339	459	536	707	1,022
비 율	7.2	9.5	11.0	14.3	20.8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8

인구구성비에서 유년인구(0-14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의 42.3%에서 2000년 21.1%로 40년 만에 50%나 급감하였고, 2020년에는 12.4%, 2050년에는 8.9%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인구구성비에서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의 54.8%에서 2000년 71.7%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의 73.4%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20년에는 72.0%, 2050년에는 53.0%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표 2-2> 인구 구성비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50년
총인구(천명)	47,008	48,138	48,875	49,326	48,635	42,343
유년인구 비중(%)	21.1	19.2	16.2	12.4	11.4	8.9
고령인구 비중(%)	7.2	9.1	11.0	15.6	24.3	38.2

주: 유년인구는 15세 미만 인구, 고령인구는 65세 이상인구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2008.11.

인구성장률은 자료가 발표된 1960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61년 3.0%에서 2019년 0.0%에 이른 이후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기 시작하여 2050년에는 -1.1%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령화 지수⁶⁾도 1960년 유년인구 100명당 6.9명에서 초기에는 더딘 속도로 증가하다가 점점 가속도가 붙는 지수함수형태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6년 처음으로 유년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가 100명을 초과한 100.7명으로 추정된 후 2050년에는 유년인구 100명당 429.3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3>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구 분	'70	'80	'90	'00	'06	'10	'20	'30	'50
노년부양비(%)	5.7	6.1	7.4	10.1	13.2	15.0	21.7	37.7	72.0
노령화지수	7.2	11.2	20.0	34.3	51.0	67.7	125.9	213.8	429.3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명)	17.7	16.3	13.5	12.4	7.6	6.7	4.6	2.7	1.4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8

현재 상황에서 고령화 수준 그 자체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다수의 OECD 국가들은 이미 2000년에 고령사회에 도달하였다.

6) 노령화 지수는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인구의 비중을 나타낸다.

주 :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노인 1명당 생산가능 인구 = (15~64세 인구 / 65세 이상 인구)

<표 2-4> 주요국가 고령화 속도

구 분	도달년도			소요년수	
	고령화사회 (7%)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고령사회 도달	초고령 사회 도달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독 일	1932	1972	2009	40	37
미 국	1942	2015	2036	73	21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청 자료 및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대비 심층 분석」, 2008.11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고령화의 진행속도이다. 한국은 현재까지 고령화 수준은 낮은 편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50년에는 65세 이상인구가 38.2%로 세계 최고령국가가 될 전망이다. 고령인구 비율이 7%에서 20%로 증가하는 데 걸린 기간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의 위험을 알 수 있게 된다. 프랑스가 154년, 미국 94년, 이탈리아 79년, 독일 77년, 일본이 36년이 소요되는 반면, 한국은 26년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일본보다도 더 빠르게 고령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미 20~30년 전부터 고령화 사회의 도래를 예견하고 준비를 해 온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은 고령화에 대비할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어 시급한 고령화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정책과제가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의 문제가 당장 시급히 대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고령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은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이슈화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2050년이 아직까지는 멀게만 느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고령화 대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다(삼성경제연구소, 2008).

위와 같은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노인문제는 고령화를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 중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문제는 소득수준향상과 보건의료기술의 발달, 가족계획의 실시 등에 의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사회에서 빨라진 정년으로 인한 역할상실과 소외, 사회 및 국가의 노인 복지정책의 미흡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⁷⁾

노인문제는 국가 및 사회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의 하나로서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문제의 형태는 보다 다양해지고 심각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부담의 증가, 노인의 빈곤, 건강, 소외의 문제, 기타 노인의 역할상실, 노인문화의 문제 등은 우리사회의 주요한 노인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3. 노인의 일반적 특성

1) 노인의 신체적 측면

우선 외견상 변화를 살펴보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세포의 재생속도가 느려져 소멸해 가는 세포수를 따라가지 못해 피부에 탄력이 없어지며, 오랜 근육의 사용 등으로 탄력이 감소된 피부에 주름이 잡히며 늘어진다. 그리고 서 있는 자세의 변화나 척추 디스크 수분 감소 및 디스크가 얇아지는데 따라 키가 약간 감소하며 등이 굽는 변화가 온다.

또한 시각은 동공근육의 탄력이 약해져서 가까운 물체를 잘 구분 못하는 원시안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섬유질이 증가하여 시각이 흐려지는 백내장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또 수정체가 노랗게 변하는 황화현상 등이 생긴다. 눈이 빛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감지와 적응능력이 약해지게 된다. 덧붙여 청각의 경우 주파수와 강도를 구분하는 능력이 감소한다. 특히 고주파소리에 대한 감각기능이 급속히 저하되어 의사소통이 불편할 정도가 되는 경우도 많다. 다른 감각들도 감소하기는 마찬가지이며 신체 내부의 균형 유지 즉 항상성 능력이 감퇴되므로 체온 조절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체온 자체도 낮아진다.⁸⁾

7) 김성순(2003), 『고령화사회정책론』, 홍익제, p. 47.

8) 홍숙자(2001), 『노년학 개론』, 도서출판 하우, pp. 57-75.

2) 노인의 지적 측면

노화가 진행되면서 기억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는데 장기 기억보다는 최근 기억이 약화되고, 기계적인 암기 기억보다는 논리적인 기억능력이 더 크게 감소되며, 본 것보다는 들은 것의 기억이 좋아진다고 한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학습능력이 저하되긴 하나 학습재료가 의미 있고 동기가 충분할수록 노·소간의 차이가 줄어든다. 사고 및 문제해결 능력도 저하되기는 하지만 교육수준·지능·및 직업 등에 영향을 받으며 문제 해결에 대한 사전 훈련을 받으면 다시 증진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창의성 측면에서는 연령과 종사하는 분야에 따라 상당한 변이가 있고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노화에 따라 창의력이 떨어진다고 단순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고 한다.⁹⁾

3) 노인의 심리적 측면

우울증 경향은 노년기 전반에 걸쳐 증가한다. 주로 질병, 죽음, 퇴직과 경제 사정 악화, 자녀출가, 사회와 가족으로부터의 고립, 후회 등이 원인이다. 우울증도 개인의 적응 수준에 따라 정도가 다르다. 노화에 따라 관심과 주의를 내면적인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내향성향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외부자극에 대한 반응보다는 자기 사고에 의해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리고 남의 도움을 받아 수동적인 해결 및 결과에 대한 무관심이 증가한다. 또한,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이나 태도·방법을 고수하면서 이를 여전히 계속하는 경직성 행동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문제해결 능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노인들은 조심성이 젊은이들보다 두드러진다. 스스로의 정확성을 신뢰하며 감각의 퇴행으로 인한 심리적 두려움도 한몫을 한다.

그리고 노인에게 회상은 현실문제에 대한 도피 장소이며 과거경험의 반복적인 생각으로 인해 확실성을 다지는 행위다. 이러한 회상은 노령기가 되면 증가하게 된다. 덧붙여 노인은 신체적 경제적 능력 쇠퇴로 인해 의존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정상적인 현상이나 보수적이며 관용적인 태도를 만든다.¹⁰⁾

9) 김태현(1994), 『노년학』, 교문사, pp. 56-60

4) 사회적 측면

은퇴와 동시에 노인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다준다. 기상취침 시간의 변화, 식사장소 변화, 만나는 사람의 변화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수준이 낮고 수입이 적절하지 못하며 친구가 적고 신체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일생 동안 스트레스가 심한 사건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은퇴 후 무거운 책임과 역할에서 벗어나 홀가분하게 느끼며 그동안 바빠서 하지 못했던 새로운 목표나 취미활동을 추구할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새로운 역할 속에서 기쁨을 찾는 노인들도 많다. 또한, 노년기가 되면 역할의 단절이 생기기 쉽다. 특히 남성의 경우 집안일에 적응되지 않고 퇴직 이후 분명한 역할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지위는 있더라도 역할은 없거나 희박한 상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은퇴나 역할 단절은 심각한 사회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보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개인 성향에 따라 그 적응양태가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좀 더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준비를 필요로 한다.

제 2절 노인의 성적(性的)특성

1. 노화에 따른 신체적 성(性)특성

성(sexuality)이란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생식적인 성교라는 좁은 의미뿐만 아니라 만족, 친밀감, 즐거움과 따스함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서 신체적이면서도 정신적인 것이라고 정의한다.¹⁰⁾ 남성들은 18세경에 성욕과 발기 및 사정능력이 최고 수준에 이르며 50세가 되면 젊었을 때의 1/2정도로 낮아진다. 노년기에는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감소되면서 성반응 곡선이 하강하는 것은 정상적인 생리 변화이다. 발기에

10) 홍숙자, 전계서 pp. 109-128

11) 권명숙(2001), 「노인의 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 9.

필요한 시간이 길어지며 직접적인 자극이 필요하고 발기 지속시간이 짧아지며 근육강도가 약해지고 자극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진다. 또한 사정시 수축의 강도가 약하고 정액의 양도 감소하며 오르가즘의 지속시간이 짧고 절정감도 전보다 약화되며 새벽 발기나 몽정의 횟수도 감소한다.

여성들은 30세 이후에 성욕 및 성 표현이 최고 수준에 이르며 50대 초반 폐경기가 되면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성적 자극에 대한 생리적 반응의 강도와 속도 및 시간이 성적 반응의 모든 단계에서 감퇴한다. 성적 흥조는 보다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질벽이 얇아지며 윤활작용이 감소하면서 자극에 대한 음핵의 반응이 지체되고 성교시 통증과 오르가즘 지연 등을 경험 할 수 있다.¹²⁾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성적 행위의 빈도가 줄어들지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지 않는 한 성기능이 소멸된 상태는 아니어서 성생활은 가능하다.

2. 노인의 성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노인들이 성생활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고정관념이 존재해 왔다. 성행위를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로서 남녀 간의 사랑과 친밀감의 표현방법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단지 자녀의 출산을 위한 과정으로서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성에 대한 욕구를 억제함을 미덕으로 삼았다. 이러한 전통적인 성문화는 현대사회에 들어와 많은 변화를 가져와 아름답고 행복하며 진실된 애정표현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단지 노인의 성행위에 대해서만은 아직 부정적인 시각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의 부정적 시각은 소득 감소·건강 약화와 역할 상실 등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노인들 스스로 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기도 한다.

비록 노년기에는 성적·신체적 기능 저하 및 사회적 제약으로 성생활 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노인들은 성생활을 매우 중요한 삶의

12) 김철성(1997), 「노인의 건강과 성에 대한 고찰」 동신대 노인복지연구소 주최 세미나, pp. 22-25

일부로 인식하고 있으며 성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갖고 있다. 또한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외톨이가 된 경우에는 새로운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인의 이성교제는 기회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곱게 보지 않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활발하지 못하다. 물론 이성교제를 원하는 목적에 남성은 성관계를 더욱 원하고 여성은 정서적 교류와 친밀관계유지를 원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성적인 활동을 규칙적으로 영위하면서 정신 및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3. 노인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노화와 함께 성적능력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로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노인의 성생활은 여러 가지 요인 즉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다르기에 노인이라고 해서 특히 감퇴한다고는 말 할 수 없다. 노인의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오진주는 성생활 장애요인을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으로 범주화 하고, 신체적 요인으로는 발기의 변화인 발기부전, 발기지속 시간의 감소와 재 발기를 위한 시간증가, 체력의 감소, 질분비물 감소 및 건강악화라는 6개의 주제 군으로, 심리적 요인으로는 자신감 감소 및 여성 노인의 관심감소라는 2개의 주제 군으로, 사회적 요인으로는 성 파트너의 부재, 부정적인 주변인식, 경제력 저하 등의 생활 여건이라는 3개의 주제 군으로 설명하고 있다.¹³⁾

신체적 요인으로 발기의 변화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완전한 음경발기를 일으키기까지의 시간이 지연된다. 심리적 요인으로 자신감 감소 및 여성노인의 관심감소는 는 상대방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하는 것이다. 성생활을 하려면 어느 정도 신체적인 성욕구가 있어야 한다. 자신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 성적 관심이 줄며

13) 오진주(1998), 「노인의 성생활 경험에 대한 서술적 연구」, pp. 240-243.

결국 성 욕구도 감소하게 된다. 여성은 폐경기가 되면 사실적으로 생식능력이 종결 되었다고 생각하는 심리적 영향이 많이 나타난다. 그것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현상으로도 나타나게 되어 남성배우자의 성적불만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것은 노년기에 나타나는 남녀의 성관계의 가치관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성적 관심은 건강할수록, 젊어서부터 성 활동이 왕성 할수록, 성적 기회가 많을수록, 성적 자극이 많을수록 길고 강하게 유지된다. 이것은 과거 성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노년기 성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요인으로서는 노인의 성을 압박하는 폐쇄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대다수 사람들은 노인이 되면 성생활은 끝났다는 편견을 가지고 노인이 성생활에 관심을 보이면 주책이라고 여겨 노인의 성을 금기시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아왔다. 노년기 성을 이해하지 않은 채 노인의 성을 떼뻗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게 하는 풍토가 노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적 욕구를 자연스럽게 표현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강제된 금욕으로 자신스스로를 제약하여 건강한 성생활을 누리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사회 문화적인 조건역시 노인의 성생활을 어렵게 한다. 즉, 사별이나 이혼, 기타의 이유로 성 파트너가 없는 사람이 많아지며 파트너가 있다고 해도 파트너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성생활을 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 성생활이 가능한 배우자는 자녀나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채워지지 않는 성적욕구를 충족시켜주는데 배우자의 상실은 성적 파트너의 상실을 가져와 노인의 건강한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제적 추구에 대한 몰두로 정신적, 신체적 피로는 성적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성생활을 즐길 수 있는 주거 환경적 요인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성 생활을 할 수 있는 다른 조건이 다 갖추어 졌더라도 자녀들과 동거하는 주거환경에서는 그 자체가 장애요인이 되어 그 활동을 감소시킨다.¹⁴⁾

이와 같이 성 파트너의 부재, 부정적인 사회인식, 경제력 저하 등에 의해 성생활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성교의 횟수는 나이, 체력, 습관, 직업, 환경, 식이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정신적 노동자가 육

14) 김지현(2006), 「노인의 성생활실태, 성인식 및 성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3.

체적 노동자에 비하여 더 약하다고 한다. 또한 결혼상태, 과거 성생활 습관, 건강상태, 마음자세, 환경, 성에대한 배우자의 관심 등이 성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¹⁵⁾

4. 노인의 성생활의 중요성

인간에게 섹스는 근원적인 에너지이자 힘든 일상을 이겨내게 하는 삶의 활력소이다. 젊은이와 마찬가지로 노인들도 성을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으며 왕성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이 많다. 노인들이 성생활을 하면 신경, 뇌 등 육체 전반에 자극이 가해지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 돼 활력을 찾게 된다. 성관계는 신체적 건강에도 기여한다. 남성의 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는 성행동에 대한 효과뿐 아니라 근육, 뼈, 음식섭취, 성장호르몬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뇌를 자극해 노화와 치매, 건망증 진행 등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에 좋을 뿐 아니라 전립선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이밖에 성적 흥분이나 쾌감은 세균이나 암세포에 저항하는 T-임파구를 증가시키고, 엔돌핀은 강력한 천연 진통제를 분비시켜 일정기간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¹⁶⁾

노인의 성생활은 생리적 측면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예일대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매주 성관계를 갖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월경주기가 더 일정하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도 증가해 골다공증과 골절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며, 실제로 7~8년 젊어 보이는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일반인보다 성관계를 2배가량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⁷⁾

Johnson¹⁸⁾의 연구(1998)에서는 자궁절제술이나 관절염, 고혈압 등 질병 유무와는 관계없이 여자노인들 중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노인들

15) 송상호(1997), 「노인의 건강과 성에 대한 의학적 고찰」, 『제2회 노인 보건복지세미나 초록집』.

16) 임장남(2008), 『노인 성교육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서울: 대왕사, p. 31.

17) 임춘식(2008), 『성은 늙지 않는다』, 동아일보사, p. 105.

18) B.K. Johnson., (1998), "A correlation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sexuality in women age 50 and older",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19. pp. 553-564.

이 성생활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인지가 단순히 건강차원만 아니라 그들의 생리적, 정신적 부분이 성행동의 중요한 차원임을 제시하였다.¹⁹⁾

노년기 우울증의 20%가 성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일을 통한 즐거움이 없는 노인의 경우 성생활을 통해 죽음에 대한 불안감, 상실감 등을 방지할 수 있다. 60세를 전후한 이들 가운데는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 등의 성호르몬을 주입했을 경우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세로토닌 같은 우울증 예방물질이 분비되어 우울증이 호전되는 경우도 있다.²⁰⁾

미국 국립 노인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인들은 심장마비가 오고 나서 12-16주가 되면 성생활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실제로 제2의 심장마비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성 활동이 활발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질 위축이 덜 나타났고 관절염을 가진 노인의 성관계는 관절의 각도와 사지의 움직임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이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의 일종인 cortisone의 분비가 촉진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꾸준한 성생활은 노화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줄일 수 있음을 지적한다.²¹⁾

2002년 세계 32개국 40~80세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화이자사가 실시한 성기능 관련조사에서 ‘인생에서 성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우리나라(남녀 각각 6백 명) 조사대상의 87%(남성: 96% 여성: 82%)가 ‘중요하다’고 답변하여 세계에서 가장 성생활을 중요시하는 국민으로 조사되었다. 2위인 이탈리아 • F스웨덴이 각각 82%, 프랑스 81%, 스페인 • F독일 • M브라질이 각각 80%, 미국 79%, 영국 70%, 대만 58%, 일본 • M중국은 53%로 나타났다.²²⁾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가능한 한 늙어서까지 성생활을 계속해야 한다. 규칙적인 성생활을 함으로써 남성의 경우에는 고환 음경의

19) 노길희(2006), 「노인의 성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3.

20) 이계성(2008), 『노년의 새로운 인생』, 서울: 뿌리출판사, p. 284.

21) 김경자(2002), 「여성노인의 성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5-16.

22) 유인애(2006), 「노인의 성관련 특성과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9.

위축과 퇴화를 막고 뇌 전두엽을 자극해 뇌의 노화, 치매, 건망증 등의 진행을 억제한다. 또한 세포의 산소 이용률을 높여 심호흡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뇌에서는 엔돌핀이 분비되어 행복감을 주고 몸에 이로운 여러 가지 물질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²³⁾

미국의 성의학자 테레사 크렌쇼 박사는 성생활이 건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성생활은 육체적 운동의 한 형태로 일주일에 세 번씩 성생활을 가질 경우 7천 5백 칼로리가 소모되며 1년 동안 합치면 120킬로미터를 달린 셈이라고 한다. 또한 남성의 대표적 질환인 전립선 관련 질환은 전립선에서 만들어진 분비물에 의해 생기거나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성생활을 통한 규칙적인 음경 운동은 전립선 관련 질환을 일으키는 분비물을 없애주고 성생활 후의 만족감은 정신이나 순환기계를 건강하게 한다.

각종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성생활은 호르몬을 보충하는데 DHEA 혈중 농도는 평상시보다 5배나 올라간다. 따라서 나쁜 콜레스테롤에 대한 좋은 콜레스테롤의 비율을 유익하게 조절하는 한편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얼마간 낮추는 효과도 있다.

성행위는 여성에게 특히 유익한데 정기적인 성생활은 질 윤활작용과 에스트로겐 생산을 자극한다. 또한 여성호르몬의 농도를 높여 심장병을 막고 질 조직을 더욱 부드럽게 하며 지속적인 성생활을 통해서 생식기의 기능이 유지되면 질의 건조 증세나, 성행위시와 오르가슴시에 근육의 수축, 그리고 질의 형태와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²⁴⁾

부부간에 직접적인 성관계가 어렵다면 이른바 대안 행위로도 충분히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성행위의 유형으로 남녀 간의 피부접촉, 키스나 포옹, 애무, 자위행위, 성교로 분류하고 있지만 주로 성교(性交, Sexual Coitus)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행위를 사랑의 표현으로 본다면 성교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노부부에게는 서로 간의 믿음을 바탕으로 한 진실한 대화나 신체적 접촉을 통한 정신적 사랑이

23) 유성호, 강지현, 홍미령(2003), 『노년의 사랑과 성』, 서울: 미래를 위하여, pp. 117-118.

24) 상계서, pp. 217-218.

서로의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Brown(1989)²⁵⁾은 Starr와 Weiner(1981)²⁶⁾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노후에서 성생활의 중요성을 노인에게 특히 많이 소요되는 의료비용의 예산을 절약하는 하나의 방법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즉, 성생활을 계속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과 비교하여 노인성 질환의 유병률이 낮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노인에게 소요되는 의료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노후의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어 노후의 성생활이 중요하다고 한다.²⁷⁾ 실제로 노후에 성관계가 없는 노부부는 사이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남성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고, 심하면 신경이 곤두서면서 매사에 짜증이 난다고 토로 한다 따라서 노후의 . 건전한 성생활은 소원해진 부부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하는 요소가 되어 이를 통해 제2의 허니문 시기를 경험하는 노인들도 많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체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성생활을 즐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쓰지 않으면 녹이 스는 것은 쇠뿔만이 아니라는 ‘용불위축(用不萎縮)’과 “Use it or lose it”의 원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 법칙은 인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 25) L. Brown, (1989). "Is There Sexual Freedom for Our Aging Population in Long-Term Care Institutions?",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13 (3/4), pp. 75-93.
- 26) B. D. Starr., & Weiner, M. B. (1981). *The Starr-Weiner Report on Sex and Sexuality in the Mature Years*. New York: Stein and Day, Inc.
- 27) 이은희(2009), 『최신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p. 317.

제 3절 노인의 성생활과 삶의 만족도

1. 노인의 성생활

노인의 성생활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연구방법, 표본 수에 따라 그 결과는 매우 다양하지만 대체로 연령증가에 따라 성생활 횟수는 감소하지만 여전히 성생활은 노년기 삶의 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창은의 연구에서 전체노인의 19.5%는 현재 성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성생활 빈도는 한 달에 1.37회로 나타났으며,³⁵⁾만 60세 이상 노인 117명을 대상으로 한 차용식의 연구에서도 전체노인의 41.0%(48명)은 현재 성생활을 하고 있으며, 성생활 빈도는 월 1-2회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욕 감퇴 시기는 51-55세가 전체의 25.6%(3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²⁸⁾

김지현의 연구에서도 노인의 58.1%가 현재 성생활을 유지하고, 성 파트너는 배우자가 54.7%로 가장 많았으며, 한 달에 2-3회의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교육정도가 높은 남성노인에게서 성생활 유지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²⁹⁾

김기영의 연구에서는 전체 노인의 59%(91명)가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남성노인의 64.8%(59명), 여성노인의 50.8%(32명)에서 성적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⁰⁾

정연강, 안승례&전미순의 연구에서도 남성노인의 50.7%가 현재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한 달 안에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도 1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³¹⁾

이러한 노년기의 성생활은 건강상태와 성 파트너의 부재, 성적흥미 결핍 뿐만 아니라 연령, 약물, 교육, 경제력, 직업적인 수준, 기동력³²⁾, 정신인지

28) 차용식(2005), 「동해시 노인의 성생활실태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9) 김지현, 전개논문.

30) 김기영(2005), 「노인의 성생활 실태와 인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1) 정연강, 안승례, 전미순(2004), 「남성노인의 성생활과 우울과의 관계」, 『노인간호학회지』, 제18호, pp.126-145.

상태, 부정적인 신체상, 사회, 윤리적인 체면³³⁾과 같은 사회적, 심리적 요소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인간의 성욕구와 성생활은 노년기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노인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나 가족의 안녕상태, 생활의 질, 행복감 등의 유사한 개념과 함께 행복의 측정 기준이 되고 있으며, 생활 전체에 대한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인 감정이며 일종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생활의 실제와 기대간의 일치에서 오는 개인의 감정에 따른 주관적, 개인적 현상으로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노인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노화란,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자아개념 등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서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가는 연속적인 과정의 결과로서 얻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삶의 만족도는 노인의 일반적인 조건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인 자신이 주어진 특성과 물리적,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얻어진다고 할 수 있다.³⁴⁾고 하였다.

노년 사회학에서 삶의 만족도라는 개념은 Tobin과 Neugarten³⁵⁾이 1961년 노인의 삶의 만족도 지표(Life Satisfaction Index)를 개발한 이후부터 일반화 되어왔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 교육참여, 건강상태, 생활수준, 사회단체수라고 보고 있으며,³⁶⁾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32) 유성호. 강숙연(2003), 「유배우자 노인의 성생활 유지여부 및 성생활 빈도와 관련된 인구 사회적 변인」, 『한국노인복지학회』, 제20호, pp.139-155.

33) 이인숙(2004), 「농촌 지역 노인의 성생활과 삶의 만족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4호, pp. 46-68.

34) 김태현(1994), 『노년학』, p. 189.

35) S.S.Tobin., & B.L.Neugarten.,(1961), "Life Satisfaction and Social Interaction in the Aging", *Journal of Gerontology*, 16, No.4, pp. 123-146.

김현철(2005), "노인의 성생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1.

36) 이우복(1993),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

지위, 자녀 유대 관계, 사회활동,³⁷⁾과 주관적으로 지각한 건강상태와 가족 결속도가 삶의 만족도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며 생활수준, 가족생활만족, 결혼상태, 가족형태, 사회참여 등이 주 요인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가족지지정도, 자아존중감, 건강증진행위, 생활기능상태, 자가 간호역량 등³⁸⁾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며,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노인이 처해 있는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조건에서 자신의 과거, 현재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갖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만족감이라 표현 하였다.경제적인 어려움은 우울증의 원인이 되고 용돈이 많은 노인이 적은 노인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으며, 주위사람과 비교한 상대적인 경제 상태에 대한 평가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⁹⁾

능동적인 성생활과 친밀한 관계를 즐기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소외감을 느끼는 노인들 중 상당수가 성을 통해 삶의 존재 즉, 자신이 살아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다.⁴⁰⁾ 또한 노인의 성적 욕구가 우울과 신체 자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하고 있으며, 노년기의 성은 직접적인 성적욕구 충족과 함께 위로, 위안이라는 애정적이며 정신적인 의미가 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⁴¹⁾

그러나 노인의 성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의학이나 보건 분야에서 노인들의 성 기능 측면이나 생리적 변화에 초점을 둔 것이 대부분이며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최근에 와서야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 석사학위논문, p.45.

37) 김수연(1987), 「도시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4.

38) 정영주(1999), 「도시지역 노인의 생활만족 결정요인에 관한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3권 2호, pp. 143-160.

39) 서미경, 김정석(1995), 「인구특성별 삶의 질 비교」, 『세계노인의 날 기념 제6회 학술세미나』

40) 서혜경(1997), 「노년기의 성에 관한 다각적 고찰」, 『노인보건복지세미나』, pp. 45-62.

41) 오진주(1999), 「노인의 성실태조사」, 『보건학 종합 학술대회 자료집』.

3. 노인의 성생활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만족의 정도이며 주관적인 감정과 태도이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 경제 상태, 동거유형, 현 생활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 외에 성 생활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발표된 연구 논문들은 주로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생활 만족도와 관련된 것들 이었다.

노인의 성생활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현재 성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높고, 배우자가 있으며,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노인부부만 생활하는 경우 성생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⁴²⁾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 상태나 건강상태 보다 성 생활 만족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성생활 만족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성생활 만족도가 교육수준, 결혼상태, 수입정도, 배우자의 연령, 건강상태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의 경우는 교육수준이 높고 기혼이며 월수입이 높을수록 성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의 경우에는 연령이 낮고 기혼이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성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⁴³⁾

이와 같이 노인의 성생활 만족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존재, 경제적 상태,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으며, 또한 성생활 만족도는 노인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주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또한 남·녀 노인 모두에게서 성생활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중 생애 대한만족도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전체적으로는 남자노인에게 있어서

42) 이창은(1999), 「노인의 성생활 인식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7.

43) 김연. 유영주(2002), 「기혼남녀의 성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 pp. 1-18.

성생활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⁴⁾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성생활과 삶의 만족도와는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는 삶의 만족도와 연관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밀접한 관계를 가질수록 안정감과 친밀감을 강하게 느끼게 되며 이러한 타인과의 친밀감, 정서적 편안함이 부족할수록 좋은 인간관계를 추구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성관계 역시 중요한 대인 관계의 하나이므로 이는 다양하게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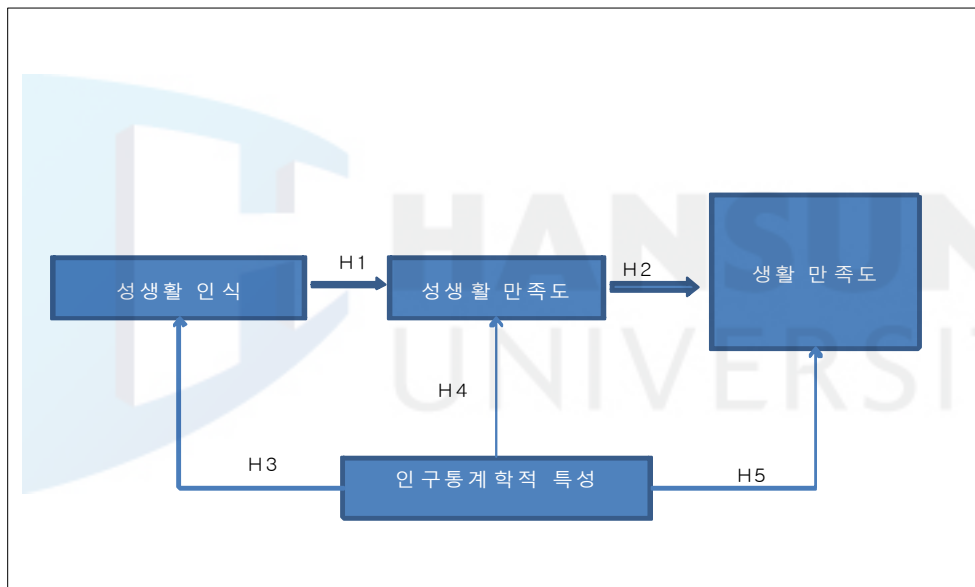
44) 차용식, 전계서, p. 67.

제 3장 노인의 성생활과 삶의 만족도 조사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그 결과 분석에 따라 문제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과 성생활 인식 및 성생활 실태가 성생활 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기본적인 분석틀은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노년기의 성 생활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복지 실천방안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그림 3-1] 연구분석의 틀



제 1절 연구문제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볼 때 노인 성생활의 실태 및 인식과 성생활 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 등을 파악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에 따라 제기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노인들의 성생활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 노인들의 성생활 인식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 노인들의 성생활 만족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5 :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생활 실태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6 :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생활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7 :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생활 인식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8 :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9 : 노인들의 성인식 및 성생활만족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10 : 노인들의 성인식 및 성생활만족도,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11 : 노인들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제 2절 조사도구

1. 노인의 특성변수

1) 인구사회적 변수

인구사회적 변수에는 성별, 연령, 교육, 결혼상태, 동거여부, 건강상태, 과거 직업과 현 직업 종교 등 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성별은 남과 여로 구분하였으며 연령은 응답자의 실제 연령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건강상태는 노인 자신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본인의 건강상태로 하였다.

2) 경제적 특성

노인들의 경제적 특성으로는 주거형태, 경제적 상태, 소득원, 한 달 용돈, 자신의 소득계층 등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성인식

성인식도의 측정은 이창은(1999)이 개발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성생활 태도, 성생활 중요도, 성생활 욕구 등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척도의 항목은 ‘정말 그렇다’ ~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리커트척도 구성(Likert Scaling)으로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성생활 실태

성생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창은(1999), 유영란(2001), 오춘규(2002), 이인숙(2004) 등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성생활의 중요성, 현재 성생활 유무, 젊은 시절 성생활 경험, 성 파트너, 성 파트너의 연령, 성생활빈도, 성생활 만족도의 변화, 성생활 방해요소, 성욕구 해결방법 성생활 촉진의 사회적 요인, 성욕구 감소원인 등 총 12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4. 성생활 만족도

성생활만족도 측정은 Derogatis(1979)의 Sexual Function Inventory 중에서 장순복(1989)이 번역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구성한 것을 인용한 김지현(2006)의 연구의 11문항으로 이루어진 5점 척도의 성생활 만족도 측정도구를 이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생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5. 삶의 만족도와 측정변수

삶의 만족도는 1961년 Neugarten과 그의 동료들이 개발한 노인 삶의 만족감척도(Life Satisfaction Index-Z)를 김현철(2001)이 번역하고 차용석(2009)이 사용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아만족도 3문항, 인생목표에 대한 성취감 3문항, 긍정적인 자아상 4문항으로 총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의 항목은 ‘정말 그렇다’ ~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리커트척도 구성(Likert Scaling)으로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위와 같은 노인의 성생활 관련 선정된 각 변수에 관한 문항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 설문지 구성

구분	문항내용	문항수
인구사회학적 변수	성별, 연령, 교육, 결혼상태, 동거여부, 건강상태, 과거직업과 현 직업 종교 등	9
경제적 특성	주거형태, 경제적 상태, 소득원, 한 달 용돈, 자신의 소득계층	5
성인식	성생활 태도, 성생활 중요도, 성생활 욕구 등	12
성생활 실태	성생활의 중요성, 현재성생활 유무, 젊은 시절 성생활 경험, 성 파트너, 성 파트너의 연령, 성생활빈도, 성생활 만족도의 변화, 성생활 방해요소, 성욕구 해결방법 성생활 촉진 사회적 요인, 성욕구 감소원인 등	12
성생활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 횟수, 다양성, 편안함 만족감, 시간의 충분성 절정감 성생활지속 등	11
삶의 만족도	자아만족도, 인생목표에 대한 성취감, 긍정적인 자아상 등	10
전체		59

제 3절 자료 수집 방법

표본의 수집 장소는 서울시 S구 경로당을 비례적으로 선정하여 S구 소재 경로당 이용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현재 S구 소재 경로당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33개소 6166명으로 구립이 44개소 2245명이며 사립이 89개소 3921명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5).

예비조사를 통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기초하여 설문지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본 조사에 사용될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여 경로당에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의 응답요령과 주의 점을 노인들에게 직접 전달하여 응답하게 하고 회수하였다. 조사기간은 2010년 9월 4일부터 20일까지 하였고, 총 300부를 배포하여 108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 응답자 4부를 제외하고 104부를 분석하였다.

제 4 절 자료 분석 및 처리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및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서 SPSS(15.0)을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며, 연구문제를 구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에 의해 수집된 자료 중 표기를 잘못했거나 표기가 누락된 것은 사례 수에서 제외하였으며, 기술통계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일반적 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경향과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전체 항목의 빈도, 퍼센트 평균 등을 산출하였다.

둘째, 성생활 인식, 성생활 만족도, 삶의 만족도에 대한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성생활 실태에 따른 성생활 만족도, 삶의 만족도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하였다.

넷째, 성생활 인식 및 성생활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성생활 인식과, 성생활만족도, 삶의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4장 분석결과 및 논의

제 1절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성생활 실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먼저 성별에서는 여자가 54.8%, 남자가 45.2%로 여자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60대가 75%, 70대가 25%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초혼유지가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재혼이 25%, 이혼 후 독신이 15.4%, 사별 후 독신이 11.5%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보통이다가 54.8%, 좋은 편이다가 36.5%, 나쁘다가 8.7%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고졸이 5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졸이하가 24%, 대졸 이상이 23.1%로 나타났다. 종교에서는 기독교가 5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가 38.5%, 불교가 7.7%로 나타났다. 동거인으로는 노부부 둘만 생활하는 경우가 5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 및 손자녀와 사는 경우가 32.7%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전세가 52.9%로 가장 많았고, 자가가 26.9%로 나타났다.

경제적 상태에서는 보통이다가 85.6%로 나타났으며, 주된 소득원으로는 저축 및 퇴직금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 달 용돈은 21-30만원인 경우가 5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계층으로는 중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1.2%로 나타났다. 과거직업으로는 상업/자영업인 경우가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직/교육직이 33.7%로 나타났다.

현재 직업으로는 무직(전업주부)인 경우가 6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업/자영업이 25%로 나타났다.

<표 4-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1

(N=104, 100%)

변 수	집 단	N	%
성별	남	47	45.2
	여	57	54.8
연령	60대	78	75.0
	70대	26	25.0
혼인 상태	초혼유지	50	48.1
	재혼	26	25.0
	사별 후 독신	12	11.5
	이혼 후 독신	16	15.4
건강 상태	나쁘다	9	8.7
	보통이다	57	54.8
	좋은 편이다	38	36.5
학력	중졸 이하	25	24.0
	고졸	55	52.9
	대졸 이상	24	23.1
종교	불교	8	7.7
	기독교	56	53.8
	기타	40	38.5
동거인	혼자 생활함	15	14.4
	노부부(둘만)	55	52.9
	자녀 및 손자녀	34	32.7
주거 형태	자가	28	26.9
	전세	55	52.9
	월세	8	7.7
	기타	13	12.5

<표 4-2>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2

(N=104, 100%)

변 수	집 단	N	%
경제적 상태	조금 어려운 편이다	7	6.7
	보통이다	89	85.6
	여유가 있는 편이다	8	7.7
주된 소득원	배우자	11	10.6
	자녀	17	16.3
	자영업수입	20	19.2
	저축 및 퇴직금	39	37.5
	기타	17	16.3
한 달 용돈	11-20만원	36	34.6
	21-30만원	59	56.7
	31만 원 이상	9	8.7
사회 계층	중상층	4	3.8
	중층	74	71.2
	중하층	10	9.6
	모르겠음	16	15.4
과거 직업	무직(전업주부)	5	4.8
	회사원/공무원	16	15.4
	상업/자영업	48	46.2
	전문직/교육직	35	33.7
현재 직업	무직(전업주부)	72	69.2
	상업/자영업	26	25.0
	전문직/교육직	6	5.8

2. 성 생활 실태

노인들의 성생활 실태를 분석한 결과, 먼저 성생활 중요도에서는 5점 만점에 평균 3.52로 보통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요하다가 6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젊은 시절 성생활 경험에서는 평균이 3.31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나으며, 보통이었다가 5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스러웠다가 35.6%로 나타났다.

현재의 성적행위에 대해서는 평균 2.13으로 보통이하로 낮게 나타났으며, 잘 누리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62.5%로 높게 나타났다. 보통이

다가 33.7%로 나타났다. 잘 누리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8%에 불과하였다.

성생활 정도에서는 6개월에 2-3번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거의 없다가 31.7%로 나타났다. 한달에 2-3번은 21.2%로 나타났다. 성적행위에 대한 만족 상태에서는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나 키스라고 응답한 경우가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대화상대로서의 이성이 25%로 나타났다. 현재 성생활 만족도에서는 평균이 3.22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만족한다가 5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만족이다가 30.8%, 보통이 16.3%로 나타났다.

성적욕구정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 2.19로 보통이하로 낮게 나타났으며, 가끔씩 느낀다가 54.8%, 그저 그렇다가 30.8%, 전혀 느끼지 않는다가 14.4%로 나타났다.

성관계 대상자로는 배우자가 6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적욕구 해결방법으로는 배우자와 한다가 6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 욕구 감소원인으로는 창피해서가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노화 현상이 26%로 높게 나타났다.

성생활 저해요인으로서는 자녀 또는 가족 등에 대한 윤리적 체면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건강문제가 32.7%로 높게 나타났다.

성생활 촉진 요인으로서는 사회문화적 편견 극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건강증진이 22.1%로 높게 나타났다.

<표 4-3> 성생활 실태1

(N=104, 100%)

변 수	집 단	N	%
성생활 중요도	중요치 않다	16	15.4
	보통이다	20	19.2
	중요하다	68	65.4
	평균	3.52	
젊은시 절성생 활경험	만족스럽지 않았다	7	6.7
	보통이다	60	57.7
	만족스러웠다	37	35.6
	평균	3.31	
성적 행위	잘 누리고 있지 않다	65	62.5
	보통이다	35	33.7
	잘 누리고 있다	4	3.8
	평균	2.13	
성생활 정도	한 달에 2-3번	22	21.2
	6개월에 2-3번	49	47.1
	거의 없다	33	31.7
성적 행위 만족	대화상대로서의 이성	26	25.0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나 키스	34	32.7
	적극적인 애무와 키스	19	18.3
	성교 이외의 모든 사랑행위	8	7.7
	성교	17	16.3
현재 성생활 만족도	불만족이다	32	30.8
	보통이다	17	16.3
	만족한다	55	52.9
	평균	3.22	

<표 4-4> 성생활 실태2

(N=104, 100%)

변 수	집 단	N	%
성적 욕구	전혀 느끼지 않는다	15	14.4
	가끔씩 느낀다	57	54.8
	그저 그렇다	32	30.8
	평균	2.19	
성관계 대상자	배우자	72	69.2
	이성 친구	10	9.6
	노인 단체나 경로당 친구	6	5.8
	기타	16	15.4
성적욕 구해결 방법	배우자와 한다	66	63.5
	이성과의 성행위를 한다	14	13.5
	취미생활이나 운동에 몰두한다	18	17.3
	의지나 종교적 힘으로 참는다	6	5.8
성욕구 감소 원인	노화 현상	27	26.0
	기회(상대)가 없어서	9	8.7
	스트레스나 신체 질병	15	14.4
	창피해서	49	47.1
	기타	4	3.8
성생활 저해 요인	배우자의 부재	10	9.6
	건강문제	34	32.7
	경제적 기반 미약	10	9.6
	이성과 만날 기회부족	8	7.7
	자녀 또는 가족 등에 대한 윤리적 체면 때문에	42	40.4
성생활 촉진 요인	건강증진	23	22.1
	경제복리 증진	18	17.3
	파트너(이성친구)	7	6.7
	사회문화적 편견 극복	56	53.8

제 2절 성생활 인식

1. 성생활 인식 수준

성생활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은 3.17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에서는 성교가 없더라도 포옹이나 입맞춤 등으로도 성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가 3.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 생활을 전제로 하는 재혼이나 이성교제를 찬성한다가 2.6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5> 성생활 인식 수준

항 목	평균	표준 편차
1.노인이 되어서도 성생활에 대해 누군가에게 터놓고 상의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3.15	.856
2. 노인이 되어서도 성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기가 힘들다	3.12	.658
3. 나이가 들어서도 성적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 생활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3.36	.709
4. 비록 몸은 늙어도 성 생활에 대한 호기심과 욕망은 여전하다	3.08	.664
5. 요즘 나오는 성기구나 정력제들(비아그라, 씨알리스 등)이 있는데 구할 수 있으면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	3.06	4.441
6. 성생활을 못하면 살맛도 없고 의욕도 없다	2.87	.484
7. 배우자가 없더라도 성 생활을 하고 싶다	3.12	.808
8. 성 생활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3.13	.534
9. 성 생활을 전제로 하는 재혼이나 이성교제를 찬성한다	2.66	.910
10. 노인의 성 생활이란 직접 삽입하는 성교로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다	3.53	.521
11. 성교가 없더라도 포옹이나 입맞춤 등으로도 성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3.56	.651
12. 성은 삶의 만족도와 깊은 관계가 있다	3.24	.583
전체	3.17	.459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성생활 인식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성생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건강상태, 한달 용돈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서는 건강이 좋은 편인 경우가 평균 3.27로 성생활 인식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이 나쁜 경우가 2.9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p<.05$)

한 달 용돈에서는 31만 원 이상인 경우가 3.39로 인식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11-20만원인 경우가 3.0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5$)

<표 4-6>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성생활 인식 차이

변 수	집 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성별	남	46	3.15	.348	-.339
	여	57	3.18	.535	
연령	60대	78	3.15	.285	.404
	70대	26	3.22	.956	
혼인 상태	초혼유지	50	3.19	.302	.711
	재혼	26	3.08	.267	
	사별 후 독신	11	3.31	1.160	
	이혼 후 독신	16	3.15	.297	
건강 상태	나쁘다	9	2.90	.282	2.725*
	보통이다	56	3.14	.561	
	좋은 편이다	38	3.27	.256	
학력	중졸	24	3.25	.797	2.202
	고졸	55	3.08	.294	
	대졸 이상	24	3.28	.239	
종교	불교	8	2.99	.335	.842
	기독교	56	3.21	.547	
	기타	39	3.15	.319	
동거 인	혼자 생활함	14	3.18	.381	.190
	노부부(둘만)	55	3.19	.283	
	자녀 및 손자녀	34	3.13	.678	
주거 형태	자가	28	3.21	.299	.664
	전세	55	3.20	.545	
	월세	8	3.05	.517	
	기타	12	3.03	.255	

* $p<.05$, ** $p<.01$, *** $p<.001$

<표 4-7>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성생활 인식 차이

변 수	집 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T/F
경제적 상태	조금 어려운 편이다	6	3.18	.300	1.791
	보통이다	89	3.14	.478	
	여유가 있는 편이다	8	3.46	.148	
주된 소득원	배우자	11	3.20	.150	.250
	자녀	16	3.15	.979	
	자영업수입	20	3.25	.280	
	저축 및 퇴직금	39	3.15	.321	
	기타	17	3.11	.279	
한 달 용돈	11-20만원	35	3.04	.231	2.868*
	21-30만원	59	3.21	.550	
	31만 원 이상	9	3.39	.341	
사회 계층	중상층	4	3.38	.160	.729
	중층	74	3.19	.505	
	중하층	10	3.03	.379	
	모르겠음	15	3.11	.272	
과거 직업	무직(전업주부)	5	3.08	.132	.138
	회사원/공무원	16	3.22	.356	
	상업/자영업	47	3.16	.618	
	전문직/교육직	35	3.16	.233	
현재 직업	무직(전업주부)	71	3.13	.513	.997
	상업/자영업	26	3.23	.309	
	전문직/교육직	6	3.35	.214	

*p<.05, **p<.01, ***p<.001

제 3절 성생활 만족도

1. 성생활 만족도 수준

성생활 만족도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체평균은 5점 만점에 2.98로 보통 이하로 낮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에서는 나는 성생활에 대해 여전히 흥미가 있다가 3.2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관계 시간이 충분하다가 2.5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8> 성생활 만족도 수준

항 목	평균	표준 편차
1. 나는 배우자(이성친구, 상대자)와의 성관계에 만족한다	3.09	.936
2. 나는 성관계 횟수가 충분하다	2.85	.810
3. 나와 배우자(이성 친구, 상대자)와의 성 생활은 다양하고 서로 즐긴다	2.78	.696
4. 성관계 후 나는 편안하고 만족감을 느낀다	3.18	.734
5. 성관계 시간이 충분하다	2.51	.668
6. 나는 성 생활에 대해 여전히 흥미가 있다.	3.26	.668
7. 나는 성관계시 매번 절정감을 느낀다	2.72	.717
8. 성관계 전 애무를 즐긴다	3.25	.721
9. 나는 배우자를 성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까 걱정한다	2.81	.882
10. 나는 성생활에 대해 배우자와 솔직하게 대화 한다	3.18	.679
11. 나는 능력이 닿는 대로 성 생활을 지속할 생각이다	3.12	.628
전체	2.98	.428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성생활 만족도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성생활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혼인상태, 건강상태, 종교, 동거인, 주거형태, 경제적 상태, 주된 소득원, 한 달 용돈, 현재직업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에서는 초혼유지가 평균 3.15로 성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사별 후 독신인 경우가 2.6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1$)

건강상태에서는 건강이 좋은 경우가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이 보통인 경우가 2.8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1$)

종교에스는 기독교가 3.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교가 2.4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1$)

동거인에서는 노부부가 사는 경우가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 및 손자녀와 같이 사는 경우가 2.8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1$)
주거형태에서는 자가인 경우가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인 경우가 2.5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1$)

경제적 상태에서는 여유가 있는 편이다가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조금 어려운 편이다가 2.7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1$)

주 소득원에서는 자영업수입인 경우가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인 경우가 2.6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5$)

한달 용돈에서는 31만 원 이상인 경우가 3.18로 가장 높았고, 11-20만 원 인경우가 2.8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5$)

현재직업에서는 전문직/교육직인 경우가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무직(전업주부)인 경우가 2.9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5$)

<표 4-9>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성생활 만족도 차이

변 수	집 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성별	남	46	2.98	.474	.175
	여	57	2.97	.390	
연령	60대	78	2.98	.403	1.878
	70대	26	2.79	.490	
혼인 상태	초혼유지	50	3.15	.345	7.204***
	재혼	26	2.85	.394	
	사별 후 독신	11	2.64	.459	
	이혼 후 독신	16	2.90	.482	
건강 상태	나쁘다	9	2.92	.379	8.378***
	보통이다	56	2.85	.424	
	좋은 편이다	38	3.19	.367	
학력	중졸	24	2.93	.501	.982
	고졸	55	2.95	.419	
	대졸 이상	24	3.08	.362	
종교	불교	8	2.44	.197	7.658***
	기독교	56	3.03	.378	
	기타	39	3.00	.461	
동거 인	혼자 생활함	14	2.84	.621	5.836**
	노부부(둘만)	55	3.11	.355	
	자녀 및 손자녀	34	2.83	.379	
주거 형태	자가	28	3.08	.439	5.601**
	전세	55	3.03	.366	
	월세	8	2.90	.381	
	기타	12	2.57	.477	

*p<.05, **p<.01, ***p<.001

<표 4-10>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성생활 만족도 차이

변 수	집 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T/F
경제적 상태	조금 어려운 편이다	6	2.74	.597	7.559**
	보통이다	89	2.95	.398	
	여유가 있는 편이다	8	3.48	.216	
주된 소득원	배우자	11	3.10	.391	3.444*
	자녀	16	2.69	.398	
	자영업수입	20	3.17	.410	
	저축 및 퇴직금	39	2.98	.424	
	기타	17	2.95	.395	
한 달 용돈	11-20만원	35	2.81	.429	5.136*
	21-30만원	59	3.05	.388	
	31만 원 이상	9	3.18	.498	
사회 계층	중상층	4	3.20	.472	1.391
	중층	74	3.01	.422	
	중하층	10	2.78	.321	
	모르겠음	15	2.90	.485	
과거 직업	무직(전업주부)	5	3.05	.285	2.049
	회사원/공무원	16	3.18	.389	
	상업/자영업	47	2.88	.465	
	전문직/교육직	35	3.00	.386	
현재 직업	무직(전업주부)	71	2.90	.420	3.934*
	상업/자영업	26	3.14	.433	
	전문직/교육직	6	3.18	.244	

*p<.05, **p<.01, ***p<.001

제 4절 삶의 만족도

1. 삶의 만족도 수준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은 3.19로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에서는 나는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고 3.9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요즘이 내 인생의 황금기인 것 같다가 2.6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11> 삶의 만족도 수준

항 목	평균	표준 편차
1. 나는 늙는다는 것이 그렇게 서글프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3.28	.830
2. 나는 다른 노인들보다 생활이 여유로운 편이다	3.19	.655
3. 나는 지금도 젊었을 때와 다름없이 행복하다	3.09	.739
4. 나는 기대했던 인생보다 많은 것을 누렸다	3.20	.768
5. 앞으로 나에게는 더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생길 것이다	3.39	.529
6. 나는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 만족 한다	3.19	.751
7. 요즘이 내 인생의 황금기인 것 같다.	2.64	.762
8. 나는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3.90	.319
9. 나는 비슷한 또래의 노인들과 비교할 때 젊은 편이다.	2.90	.757
10.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하고 살았다.	3.12	.628
전체	3.19	.575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건강상태, 학력, 한 달 용돈, 과거직업, 현재직업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서는 건강이 좋은 편이다가 3.43으로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쁘다가 2.9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1$)

학력에서는 대졸이상인 경우가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졸인 경우가 3.0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1$)

한 달 용돈에서는 31만 원 이상인 경우가 3.5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1-20만원인 경우가 3.0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5$)

과거직업에서는 회사원/공무원이었던 경우가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직이었던 경우가 2.9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5$)

현재직업에서는 전문직/교육직인 경우가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직인 경우가 3.1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1$)

<표 4-1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변 수	집 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성별	남	46	3.22	.803	.481
	여	57	3.17	.276	
연령	60대	78	3.16	.304	.569
	70대	26	3.24	.260	
혼인 상태	초혼유지	50	3.23	.334	.954
	재혼	26	3.27	.954	
	사별 후 독신	11	2.97	.557	
	이혼 후 독신	16	3.11	.310	
건강 상태	나쁘다	9	2.92	.268	6.178**
	보통이다	56	3.07	.358	
	좋은 편이다	38	3.43	.780	
학력	중졸	24	3.06	.412	5.641**
	고졸	55	3.11	.307	
	대졸 이상	24	3.52	.965	
종교	불교	8	2.98	.311	.762
	기독교	56	3.18	.307	
	기타	39	3.25	.842	
동거 인	혼자 생활함	14	3.09	.518	1.713
	노부부(둘만)	55	3.29	.697	
	자녀 및 손자녀	34	3.08	.295	
주거 형태	자가	28	3.24	.387	2.233
	전세	55	3.26	.682	
	월세	8	3.19	.290	
	기타	12	2.82	.418	

*p<.05, **p<.01, ***p<.001

<표 4-1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변 수	집 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경제적 상태	조금 어려운 편이다	6	2.93	.652	2.252
	보통이다	89	3.18	.582	
	여유가 있는 편이다	8	3.54	.177	
주된 소득원	배우자	11	3.20	.237	1.458
	자녀	16	2.91	.396	
	자영업수입	20	3.24	.291	
	저축 및 퇴직금	39	3.30	.799	
	기타	17	3.17	.444	
한 달 용돈	11-20만원	35	3.04	.335	2.789*
	21-30만원	59	3.24	.672	
	31만 원 이상	9	3.50	.512	
사회 계층	중상층	4	3.35	.311	.927
	중층	74	3.24	.609	
	중하층	10	3.07	.589	
	모르겠음	15	3.01	.419	
과거 직업	무직(전업주부)	5	2.98	.277	2.634*
	회사원/공무원	16	3.54	1.220	
	상업/자영업	47	3.12	.352	
	전문직/교육직	35	3.16	.298	
현재 직업	무직(전업주부)	71	3.11	.360	8.644***
	상업/자영업	26	3.23	.318	
	전문직/교육직	6	4.05	1.861	

*p<.05, **p<.01, ***p<.001

제 5절 성생활 인식과 성생활 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1. 성생활 인식과 성생활 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성생활 인식과 성생활 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생활 인식과 성생활 만족도간에는 상관계수가 .519로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성생활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간에는 상관계수 .349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성생활 인식과 삶의 만족도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성생활 인식과 성생활 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와의 상관관계

	성생활인식	성생활 만족도	삶의 만족도
성생활인식	1		
성생활만족도	.519(**)	1	
삶의 만족도	.184	.349(**)	1

**p<.01

2. 성생활 인식이 성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생활 인식이 성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성생활 인식을 독립변수로, 성생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독립변수의 유의도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계수,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베타계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표본자료로부터 추정된 회귀선이 관찰값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측정하는 척도중의 하나인 결정계수는 Adjusted R Square=.262이다. 즉, 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의 성생활만족도에 관한 변동의 26.2%정도가 독립변수인 성생활 인식도에 의하여 설명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회귀모형의 F값은 37.148이고 유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Sig=.000). 회귀분석결과 표준화 회귀계수 값을 통해 성생활 인식($\beta=.519$, $p=.000$)이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즉, 성생활 인식도가 높을수록 성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성생활 인식이 성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도
	β	표준오차	β		
상수	1.514	.244		6.192	.000
성생활인식	.466	.076	.519	6.095	.000
종속변수: 성생활 만족도 수정된 $R^2=.262$ F값=37.148 유의도=.000					

3. 성생활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생활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성생활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독립변수의 유의도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계수,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베타계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표본자료로부터 추정된 회귀선이 관찰값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측정하는 척도중의 하나인 결정계수는 Adjusted R Square=.113이다. 즉, 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변동의 11.3%정도가 독립변수인 성생활 만족도에 의하여 설명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회귀모형의 F값은 14.169이고 유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Sig=.000). 회귀분석결과 표준화 회귀계수 값을 통해 성생활 만족도($\beta=.349$, $p=.000$)이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즉, 성생활 만족도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성생활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도
	β	표준오차	β		
상수	1.797	.374		4.801	.000
성생활만족도	.469	.124	.349	3.764	.000
종속변수 : 삶의 만족도 수정된 $R^2=.113$ $F값=14.169$ 유의도=.000					



제 5장 결 론

제 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노인의 성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들은 성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또한 인구사회적·경제적 특성에 따른 성생활 실태와 성인식이 성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성생활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노인의 성에 대한 이해와 부정확, 편견, 고정관념을 감소시킴으로써 관대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며, 또한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행복한 노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고찰과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먼저 문헌고찰로는 국내외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논문 등으로 이론적 고찰을 하였으며, 각종 통계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정부기록물자료,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서 노인 성 생활의 실태 등을 파악하였다. 실증연구로는 서울시 S구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작성하여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먼저 성별에서는 여자가 54.8%, 남자가 45.2%로 여자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60대가 75%, 70대가 25%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초혼유지가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재혼이 25%, 이혼 후 독신이 15.4%, 사별 후 독신이 11.5%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보통이다가 54.8%, 좋은 편이다가 36.5%, 나쁘다가 8.7%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고졸이 5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졸이하가 24%, 대졸 이상이 23.1%로 나타났다. 종교에서는 기독교가 5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가 38.5%, 불교가 7.7%로 나타났다. 동거인으로는 노부부 둘만 생활하는 경우가 5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 및 손자녀와 사는 경우가 32.7%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전세가 52.9%로 가장 많았고, 자가 26.9%로 나타났다.

경제적 상태에서는 보통이다가 85.6%로 나타났으며, 주된 소득원으로는 저축 및 퇴직금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 달 용돈은 21-30만원인 경우가 5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계층으로는 중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1.2%로 나타났다. 과거직업으로는 상업/자영업인 경우가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직/교육직이 33.7%로 나타났다.

현재 직업으로는 무직(전업주부)인 경우가 6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업/자영업이 25%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들의 성생활 실태를 분석한 결과, 먼저 성생활 중요도에서는 5점 만점에 평균 3.52로 보통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젊은 시절 성생활 경험에서는 평균이 3.31로 보통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의 성적행위에 대해서는 평균 2.13으로 보통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성생활 정도에서는 6개월에 2-3번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적행위에 대한 만족 상태에서는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나 키스라고 응답한 경우가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성생활 만족도에서는 평균이 3.22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성적욕구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평균 2.19로 보통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성관계 대상자로는 배우자가 6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적욕구해결방법으로는 배우자와 한다가 6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 욕구 감소원인으로는 창피해서가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생활 저해요인으로는 자녀 또는 가족 등에 대한 윤리적 체면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생활 촉진 요인으로는 사회문화적 편견 극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건강증진이 22.1%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성생활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은 3.17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에서는 성교가 없더라도 포옹이나 입맞춤 등으로도 성

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가 3.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 생활을 전제로 하는 재혼이나 이성교제를 찬성한다가 2.6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성생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건강상태, 한달 용돈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서는 건강이 좋은 편인 경우가 평균 3.27로 성생활 인식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이 나쁜 경우가 2.9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5$)

한 달 용돈에서는 31만 원 이상 경우가 3.39로 인식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1-20만원인 경우가 3.0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5$)

넷째, 성생활 만족도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체평균은 5점 만점에 2.98로 보통이하로 낮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에서는 나는 성생활에 대해 여전히 흥미가 있다가 3.2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관계 시간이 충분하다가 2.5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성생활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혼인상태, 건강상태, 종교, 동거인, 주거형태, 경제적 상태, 주된 소득원, 한 달 용돈, 현재직업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에서는 초혼유지가 평균 3.15로 성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별 후 독신인 경우가 2.6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1$)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성생활에서 배우자의 존재유무가 성생활 욕구, 중요도, 인식전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주요한 영향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건강상태에서는 건강이 좋은 경우가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이 보통인 경우가 2.8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1$)

종교에스는 기독교가 3.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교가 2.4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1$)

동거인에서는 노부부가 사는 경우가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 및 손자녀와 같이 사는 경우가 2.8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1$) 주거형태에서는 자가인 경우가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인 경우가 2.5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1$)

경제적 상태에서는 여유가 있는 편이다가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조금 어려운 편이다가 2.7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1$)

주도인 소득원에서는 자영업수입인 경우가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인 경우가 2.6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5$)

한달 용돈에서는 31만 원 이상 경우가 3.18로 가장 높았고, 11-20만원인 경우가 2.8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5$)

현재직업에서는 전문직/교육직인 경우가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무직(전업주부)인 경우가 2.9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5$)

다섯째,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은 3.19로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에서는 나는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가 3.9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요즘이 내 인생의 황금기인 것 같다가 2.6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건강상태, 학력, 한달 용돈, 과거직업, 현재직업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서는 건강이 좋은 편이다가 3.43으로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쁘다가 2.9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1$)

학력에서는 대졸이상인 경우가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졸인 경우가 3.0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1$)

한 달 용돈에서는 31만 원 이상인 경우가 3.5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1-20만원인 경우가 3.0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5$)

과거직업에서는 회사원/공무원이었던 경우가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직이었던 경우가 2.9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5$)

현재직업에서는 전문직/교육직인 경우가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직인 경우가 3.1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1$)

여섯째, 성생활 인식과 성생활 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생활 인식과 성생활 만족도간에는 상관계수가 .519로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성생활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간에는 상관계수 .349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성생활 인식과 삶의 만족

도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성생활 인식이 성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성생활 인식을 독립변수로, 성생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독립변수의 유의도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계수,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베타계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표본자료로부터 추정된 회귀선이 관찰값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측정하는 척도중의 하나인 결정계수는 수정된 $R^2=.262$ 이다. 즉, 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의 성생활만족도에 관한 변동의 26.2%정도가 독립변수인 성생활 인식도에 의하여 설명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회귀모형의 F값은 37.148이고 유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유의수준=.000). 회귀분석결과 표준화 회귀계수 값을 통해 성생활 인식($\beta=.519$, $p=.000$)이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즉, 성생활 인식도가 높을수록 성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성생활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성생활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독립변수의 유의도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계수,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베타계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표본자료로부터 추정된 회귀선이 관찰값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측정하는 척도중의 하나인 결정계수는 수정된 $R^2=.113$ 이다. 즉, 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변동의 11.3%정도가 독립변수인 성생활 만족도에 의하여 설명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회귀모형의 F값은 14.169이고 유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Sig=.000). 회귀분석결과 표준화 회귀계수 값을 통해 성생활 만족도($\beta=.349$, $p=.000$)이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즉, 성생활 만족도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 이창은(1991), 김연, 유영주(2002), 차용식(2009), 김지현(2006)의 연구결과 즉 성생활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들과의 차이점은 성생활 인식 정도가 성생활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성생활 인식과 삶의 만족도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성생활 만족도가 본 연구에서는 2.98로 다른 선행연구 즉 차용식(2009)의 성생활 만족도 평균 3.19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제 2절 제언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노인들의 올바른 성지식과 태도를 길러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들의 , 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들은 성에 대해 교육받을 기회가 거의 없는 세대였기 때문에 성에 대한 지식은 대부분 경험에 의해 습득하게 되었다. 특히 성병이나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년기에 알맞은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며, 노인들의 올바른 성지식과 태도를 길러 성생활의 만족으로 인한 삶의 만족도를 높여 주어야 한다.

둘째, 노인 성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노인들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노인이 될 예비노인들에게도 실시하여야 한다. 40~50대 중장년층들에게도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예비노인 때부터 성을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가족이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노인의 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가족 간에 유대를 강화시켜주고 가족구조로 인한 가족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셋째, 전문상담기관과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노인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담기관이나 노인을 이해하고 노인들의 정신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노인들을 대하는 전문 인력의 태도에 의해 노인들의 성에 대한 인식은 크게 영

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문 인력의 인식전환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홀로된 노인들에게 이성교제 및 재혼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성상대라고 해서 반드시 섹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 외로움을 달래고 공유할 수 있는, 말벗이 되어 줄 수 있는 친구의 개념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노인을 위한 이성과의 만남의 장이 지역사회와 복지기관의 후원과 프로그램으로 ‘황혼미팅’과 같은 홀로된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노인 스스로, 긍정적인 성인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성과 관련하여 재혼이나 이성교제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일관해야 한다. 몇 년 남지 않은 노후의 생을 위하여 혼자 외롭게 지내기보다는 적극적인 사회활동과 함께 이성교제와 재혼에서 자녀의 눈치를 보지 말고 긍정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왜냐하면 노인들도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노인 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이다.

노인의 성적 욕구 해결과 자유로운 성 활동, 노인들이 고답적인 성 개념에서 벗어나 보다 풍족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편견에서 벗어나 인간이 누려야 하는 권리로서 성의 문제가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의 경우 배우자의 사망, 노년 이혼, 각종 질병, 사회·문화적인 편견과 차별, 경제적 의존 때문에 자신의 의사에 의해 성 생활을 하거나 이성교제 및 재혼을 할 기회를 제약받고 있다. 노인의 성에 대한 기본적 욕구가 개인적 노력과 사회적 제도적 지원에 의해 충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욕구의 존재 자체가 외면 받거나 무시되고 있다. 더불어 노인의 경우에는 생활주체로서 자신의 생활영역의 하나인 성적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권리확보가 다른 사회계층보다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도 자신에 의해 성 생활을 계속하거나 이성교제 및 결혼을 할 신체적 기능과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는 노령이라고 하는 생애 주기적 조건에 의해 제약당하거나 차별받아서 안되며, 사회는 그와 같은 노인의

성적 욕구의 실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회의 행정서비스 조직이나 복지정책으로만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스웨덴의 경우처럼 성욕 해소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가 들어설 문화적 풍토는 되지 않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이를 떠나 젊은이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노인의 성을 이해하고 삶의 소중한 부분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사회가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전체 노인들을 대변할 수 없지만 조사 대상 노인의 대부분이 아직도 성 욕구를 갖고 있으며 성에 관한 관심과 성 생활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회적인 선입관과 편견의 교정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그나마 손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토론회나 세미나를 통한 사회적 아젠타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관련 정책부서와 학계 시민단체 등 복지관련 단체들이 전문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캠페인을 벌여야 할 것이다.

제 3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연구과제

이러한 연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시 S구의 60세 이상의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국한된 지역설정의 공간적 배경과 모집단의 표본에 대한 한계가 있다.

둘째,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통한 사전조사(pre-study)와 사전검사(pre-test)를 실시하여 나타나는 문제점과 오차들을 검증한 후에 실시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 없이 적용함으로써 신뢰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설문지의 내용구성은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가능한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되어야 했으며 과도한 설문 문항도 힘들어 보였다.

셋째, 한글을 모르거나 시력이 안 좋은 경우에는 연구자가 직접 설명하

고 읽어드려야 하는데, 남자노인들은 적극적이고 솔직하게 응답하는데 비해 여성노인들은 부끄러워하며 적당히 대답하여 솔직한 답변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지인(知人)들도 연구자를 의식해서 체면상 답변하는 것으로 보여 아쉬운 면을 보였다.

성문제가 예민한 주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은 점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되었고, 앞으로 후속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여 이루어진다면 한층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단행본

- 권육상(2002), 『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 김성순(2003), 『고령화사회정책론』, 홍익제, p. 47.
- 김태현(1994), 『노년학』, 교문사.
- 유성호. 강지현. 홍미령(2003), 『노년의 사랑과 성』, 서울: 미래를 위하여.
- 이계성(2008), 『노년의 새로운 인생』, 서울: 뿌리출판사
- 이은희(2009), 『최신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 이혜원(2004), 『노인복지론 : 이론과 실제』, 유풍출판사.
- 임장남(2008), 『노인 성교육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서울: 대왕사.
- 임춘식(2008), 『성은 늙지 않는다』, 동아일보사
- 정희원(2008), 『관계로 바라보는 노인의 성 : 성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 홍숙자(2001), 『노년학 개론』, 도서출판 하우.

논문

- 권명숙(2001), 「노인의 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경자(2002), 「여성노인의 성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림대학교.
- 김기영(2005), 「노인의 성생활 실태와 인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수연(1987), 「도시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 유영주(2002), 「기혼남녀의 성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
- 김지현(2006), 「노인의 성생활실태, 성인식 및 성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철성(1997), 「노인의 건강과 성에 대한 고찰」 동신대 노인복지연구소 주최 세미나.
- 김현철(1994), 「노인의 성생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길희(2006), 「노인의 성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숭실대학교.
- 백유미(1995), 「노인기 섹슈얼리티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 서미경. 김정석(1995), 「인구특성별 삶의 질 비교」, 『세계노인의 날 기념 제6회 학술세미나』
- 서혜경(1997), 「노년기의 성에 관한 다각적 고찰」, 『노인보건복지세미나』 자료집.
- 성경원(2004), 「노인의 성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송상호(1997), 「노인의 건강과 성에 대한 의학적 고찰」, 『제2회 노인 보건복지세미나 초록집』.
- 오진주(1998), 「노인의 성생활 경험에 대한 서술적 연구」, pp. 240-243.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2권, 2호
- 오진주(1999), 「노인의 성 실태조사」, 『보건학 종합 학술대회 자료집』.
- 유성호. 강숙연(2003), 「유배우자 노인의 성생활 유지여부 및 성생활 빈도와 관련된 인구 사회적 변인」, 『한국노인복지학회』, 제20권, pp. 145-163.
- 유인애(2006), 「노인의 성관련 특성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우복(1993),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인숙(2004), 「농촌 지역 노인의 성생활과 삶의 만족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이창은(1999), 「노인의 성생활 인식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연강, 안승례. 전미순(2004), 「남성노인의 성생활과 우울과의 관계」, 『노인간호학회지』

정영주(1999), 「도시지역 노인의 생활만족 결정요인에 관한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3권 2호, pp. 143-160.

차용식(2009), 「동해시 노인의 성생활실태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외국문헌

Brown, L. (1989). Is There Sexual Freedom for Our Aging Population in Long-Term Care Institutions?,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13 (3/4), 75-93.

Johnson, B.K(1988) A correlation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sexuality in women age 50 and older,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19. pp.553-564.

Starr, B. D., & Weiner, M. B. (1981). *The Starr-Weiner Report on Sex and Sexuality in the Mature Years*. New York: Stein and Day, Inc.

Tobin, S.S. & Neugarten, B.L. (1961), Life Satisfaction and Social Interaction in the Aging, *Journal of Gerontology*, 16, No. 4.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노인의 성생활 실태 및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설문지는 노년기의 성 생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나은 노후의 삶을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어르신께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조사 및 학술적인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오직 통계자료로만 활용됨을 약속드립니다.

각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으며, 오직 어르신이 생각하시고 느끼시는 대로만 답변에 주시면 됩니다.

어르신의 의견은 본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사용되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 설문에 성실히 응해 주신 것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20010년 8월

연 구 자 : 신용선 올림

연 락 처 :

E-mail :

I. 다음은 어르신의 성인식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매우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노인이 되어서도 성생활에 대해 누군가에게 터 놓고 상의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2. 노인이 되어서도 성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면 마음 의 평화를 얻기가 힘들다					
3. 나이가 들어서도 성적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 생활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4. 비록 몸은 늙었어도 성 생활에 대한 호기심과 욕망 은 여전하다					
5. 요즘 나오는 성기구나 정력제들(비아그라, 싸알리스 등)이 있는데 구할 수 있으면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					
6. 성생활을 못하면 살맛도 없고 의욕도 없다					
7. 배우자가 없더라도 성 생활을 하고 싶다					
8. 성 생활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9. 성 생활을 전제로 하는 재혼이나 이성교제를 찬성 한다					
10. 노인의 성 생활이란 직접 삽입하는 성교로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다					
11. 성교가 없더라도 포옹이나 입맞춤 등으로도 성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12. 성은 삶의 만족도와 깊은 관계가 있다					

II. 다음은 성 생활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어르신의 성 생활이 노년기 성 생활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중요치 않다 (3) 보통이다 (4) 중요하다 (5) 매우 중요하다
2. 젊은 시절의 어르신의 성 생활에 대한 경험은 어떠하셧습니까?
(1)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2) 만족스럽지 않았다 (3) 보통이다 (4) 만족스러웠다 (5) 매우 만족스러웠다
3. 어르신은 성적행위를 얼마나 잘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2) 잘 누리고 있다 (3) 보통이다 (4) 잘 누리고 있다 (5) 매우 잘 누리고 있다
4. 어르신은 어느 정도 성생활을 하십니까?
(1) 1주일에 한번 이상 (2) 한달에 2-3번 (3) 6개월에 2-3번 (4) 거의 없다
5. 어르신은 어느 정도의 성적 행위에 만족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대화상대로서의 이성 (2)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나 키스 (3) 적극적인 애무와 키스 (4) 성교 이외의 모든 사랑행위 (5) 성교 (6) 기타
6. 현재의 성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불만족이다 (2) 불만족이다 (3) 보통이다 (4) 만족한다 (5) 매우 만족한다
7. 어르신은 성적 욕구를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십니까?
(1) 전혀 느끼지 않는다 (2) 가끔씩 느낀다 (3) 그저 그렇다 (4) 자주 느끼는 편이다 (5) 늘 강하게 느낀다

8. 성관계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1) 배우자 (2) 이성친구 (3) 직업여성 (4) 노인단체나 경로당 친구 (5) 기타

9. 성적 욕구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1) 배우자와 한다 (2) 이성과의 성행위를 한다 (3) 자위행위를 한다
(4) 취미생활이나 운동에 몰두 한다 (5) 의지나 종교적 힘으로 참는다

10. 성 욕구 감소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노화 현상 (2) 기회(상대)가 없어서 (3) 스트레스나 신체 질병 (4) 경제적
문제 (5) 창피해서 (6) 기타 ()

11. 어르신의 성생활을 저해하는 사회적 요인은 무엇입니까?

(1) 배우자의 부재 (2) 건강문제 (3) 경제적 기반 미약 (4) 이성과 만날 기회
부족 (5) 자녀 또는 가족 등에 대한 윤리적 체면 때문에

12. 어르신의 성생활을 촉진하는 사회적 요인은 무엇입니까?

(1) 건강증진 (2) 경제복리 증진 (3) 약물공급 (4) 파트너(이성친구) (5)
사회문화적 편견 극복

Ⅲ. 다음은 어르신의 성 생활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매우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배우자(이성친구, 상대자)와의 성관계에 만족한다					
2. 나는 성관계 횟수가 충분하다					
3. 나와 배우자(이성친구, 상대자)와의 성 생활은 다양하고 서로 즐긴다					
4. 성관계 후 나는 편안하고 만족감을 느낀다					
5. 성관계 시간이 충분하다					
6. 나는 성 생활에 대해 여전히 흥미가 있다.					
7. 나는 성관계시 매번 절정감을 느낀다					
8. 성관계 전 애무를 즐긴다					
9. 나는 배우자를 성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까 걱정한다					
10. 나는 성생활에 대해 배우자와 솔직하게 대화 한다					
11. 나는 능력이 닿는 대로 성 생활을 지속할 생각이 다					



IV. 다음은 어르신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 표시 해주
시기 바랍니다.

항 목	매우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늙는다는 것이 그렇게 서글프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2. 나는 다른 노인들보다 생활이 여유로운 편이다					
3. 나는 지금도 젊었을 때와 다름없이 행복하다					
4. 나는 기대했던 인생보다 많은 것을 누렸다					
5. 앞으로 나에게는 더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생길 것이다					
6. 나는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 만족 한다					
7. 요즘이 내 인생의 황금기인 것 같다.					
8. 나는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9. 나는 비슷한 또래의 노인들과 비교할 때 젊은 편이다.					
10.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하고 살았다.					

V. 다음은 어르신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해당되시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어르신의 성별은 ?

(1) 남 (2) 여

2. 어르신의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세

3. 어르신의 혼인상태는 어떠십니까?

(1) 초혼유지 (2) 재혼 (3) 사별 후 독신 (4) 이혼 후 독신 (5) 별거 (6) 결혼
경험 없음

4. 동년배와 비교해서 어르신의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아주 나쁘다 (2) 나쁘다 (3) 보통이다 (4) 좋은 편이다 (5) 매우 좋은
편이다

5. 어르신의 학력은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1) 무학 (2) 한학 (3) 초졸 (4) 중졸 (5) 고졸 (6) 대졸 이상

6. 어르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1) 불교 (2) 기독교 (3) 천주교 (4) 유교 (5) 기타

7. 어르신은 누구와 살고 계십니까?

(1) 혼자 생활함 (2) 노부부(둘만) (3) 자녀 및 손자녀 (4) 미혼 자녀 (5) 노부모를 모심 (6) 기타

8. 현재 살고 계신 곳의 주거 형태는?

(1) 자가 (2) 전세 (3) 월세 (4) 영구임대 (5) 기타

9. 어르신의 현재 경제적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어렵다 (2) 조금 어려운 편이다 (3) 보통이다 (4) 여유가 있는 편이다
(5) 매우 여유가 있는 편이다

10. 어르신의 주된 소득은 어디에서 나오는지요?

(1) 배우자 (2) 자녀 (3) 부동산업 (4) 연금 (5) 자영업수입 (6) 저축 및 퇴직금
(7) 공공부조(정부보조금) (8) 기타

11. 어르신의 한달 용돈은 얼마 정도 되십니까?

(1) 10만원 미만 (2) 11-20만원 (3) 21-30만원 (4) 31-40만원 (5) 40만원 이상

12. 어르신 가족은 한국 사회의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상층 (2) 중상층 (3) 중층 (4) 중하층 (5) 하층 (6) 모르겠음

13. 어르신의 과거 직업은 무엇입니까?

(1) 무직(전업주부) (2) 회사원/공무원 (3) 상업/자영업 (4) 전문직/교육직 (5)

농어업/임업/축산업 등

14. 현재 어르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무직(전업주부) (2) 회사원/공무원 (3) 상업/자영업 (4) 전문직/교육직 (5)

농어업/임업/축산업 등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BSTRACT

A Study on Elderly People's Sex Life and Their Satisfaction with Life

Shin Yong-sun

Major in **Social Welfare**

Dept.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elderly people's sex life and their attitudes toward sex and thereupon, analyze the conditions of their sex life depending on their demographic and financial variables, the influence of their perceived sex over their satisfaction with sex and the correlations between their satisfaction with sex and that with lif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literature review and empirical research in parallel. First,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and preceding studies were extensively reviewed, while various statistics, data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ies, other government publications and on-line data were checked, to examine the conditions of elderly people's sex life. Then,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the elderly people aged 60 or older and living in 'S' district in Seoul.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importance of the sex life for the elderly people scored 3.52

on average, a higher one than the normal level.

Second, elderly people's perception of the sex life scored 3.17 on average, a higher one than the normal level. Differences of such percep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depending on health condition and monthly pocket money.

Third, elderly people's satisfaction with their sex life scored 2.98, a lower level than the normal one. Differenc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epending on marital status, health condition, religious status, family status, housing type, financial condition, major income source, monthly pocket money and job status.

Fourth, elderly people's satisfaction with life scored 3.19 on average, a higher level than the normal one. Differenc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epending on health condition, academic background, monthly pocket money, past and current jobs.

Fift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elderly people's perception of sex life and their satisfaction with sex life or ordinary life, it was found that their perception of sex life affected their satisfaction with sex life significantly (correlation coefficient: .519), and that their satisfaction with sex lif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ir satisfaction with life (correlation coefficient: .349). In contrast, their perception of sex life was not correlated with their satisfaction with life.

Sixth, it was found that the more positively the elderly people perceived their sex life, they were more satisfied with their sex life.

Seventh, the more they were satisfied with their sex life, they were more satisfied with their life.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put forwards to help the elderly people informed correctly of the sex life and have them cultivate a desirable attitude toward sex;

First, the elderly people should be appropriately informed of sex.

Second, the subjects of the elderly people's sex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expanded.

Third, special counselling organizations should be established more with their professional manpower trained more.

Fourth, the single elderly people should be given opportunities for dating or remarriage.

Fifth, the elderly people should be encouraged to perceive the sex affirmatively.

Sixth, the most urgent task to help the elderly people fulfill their sexual desire, enjoy their sex life freely and depart from their vintage of sex and thereby, live a richer life is to solicit the public understanding of elderly people's sex life and form a public consensus for elderly people's right of sex.

